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통

손봉호 (대표주관)

최근 '소통'이란 말을 많이 듣는다.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것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생기니까 비로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다. 요즘 '안전'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본래 안전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세월호 사고로 그 중요성을 새삼스레 깨닫기 때문이다. '소통'도 비슷하지 않나 한다. 소통은 항상 중요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요즘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구태여 오늘날 소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역설적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언론의 자유가 더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욕두문자로 욕을 하고 온갖 비열한 표현으로 멧글을 달아도 별로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신 수단이 더 발달되어 있다.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무선 전화 등의 매체에 관한 한 우리를 따를 나라가 별로 없다. 글과 말도 쉬워졌다.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나 말은 사람들이 읽고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쉽게 쓰려고 안간힘을 쓴다. 말이 이렇게 많아진 적도 없고, 이렇게 쉽게 그리고 알기 쉽게 전달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사실은 지금만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별로 잘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문제, 민주화, 북한 위협 등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했고 그들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

지 문제는 저절로 풀릴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화는 해결되었고 북한의 위협도 과거보다는 덜 심각한데도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외롭고 갈등은 더 크며 단합이 잘 되지 않아 공생이 위협을 받는다. 형식적 조건은 잘 갖추어졌는데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자명한 대답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진심으로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거나 솔직하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두 철저히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나만 중요하고 잘났으며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차세 중심적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며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삶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인간 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입신양명(立身揚名)은 경쟁에서 이겨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조건이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주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 치열했다. 적기에 내린 비와 풍부한 햇빛으로 풍년이 들어야 부자가 되었던 시대에는 다른 사람과 이해문제로 겨룰 이유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거의 전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오늘날에는 인간



관계가 결정적이 되었고 그것이 주로 이해관계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경쟁적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자 간에는 전략적 교환만 있을 뿐 진정한 소통은 일어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외롭고 불행해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교회와 교단 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도 '내가 잘 섬겨야 하고 복과 은혜도 '나'와 '우리 가족이 받아야 하며 성장도 '우리 교회'만 해야 하고 심지어 선교, 구제, 전도도 '우리 교회'가 주도해야 한다. '이웃'의 축복, '이웃 교회'의 성장, '다른 교단'의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나 교단 간에도 경쟁은 있어도 소통은 없다. 이렇게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바울이 권고하는 데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빌 2:3-8) 가능하다. 바울은 그런 것이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친다. 말을 많이 하고 대화 기술이 뛰어나야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진정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것이 그런 소통이다. 그런 소통이 이웃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쟁길 때보다 훨씬 더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준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알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